부산지방기상청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7. 21.(화) 16:00 배포 2026. 7. 21.(화) 16:00

100년 기상기후 기록, 세계유산 가치 알려

- 부산기상관측소,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가국 방문

부산지방기상청(청장 직무대리 임윤진)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7월 21일(화), **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[1]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산기상관측소를 소개하는 부산지역 유산 현장 탐방**을 진행했다.

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하여 참가국을 대상으로 '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'과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, 경주 불국사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일정 중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.

부산기상관측소는 한국전쟁 중에 국립중앙관상대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상관측을 계속 이어온 의미 있는 장소로써, 지난 **2017년에 세계기상기구로부터 서울 관측소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100년 관측소로 지정되어 기후의 변화와 변동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**을 해오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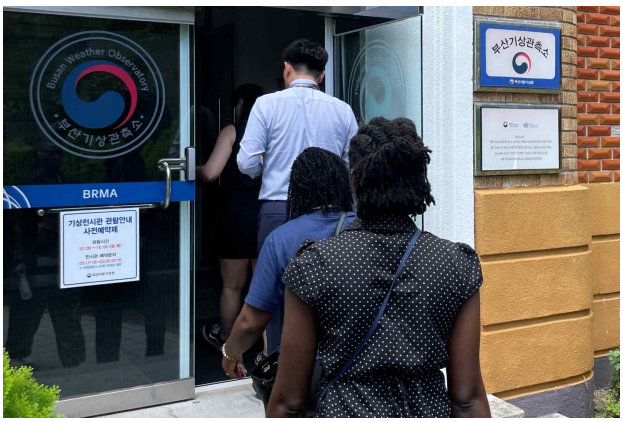
미국, 일본, 독일, 나이지리아 등 14명의 행사 참가자들은 "부산기상관측소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람과 날씨를 관측해 온 **역사적·건축적 가치를 모두 갖춘 곳이라는 점이 인상 깊다.**"라고 밝히며, 내부에 전시된 **측우기를 관람하고 오랜 기상 역사를 바탕으로 이룩한 기상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에 박수를 보냈다.**

임윤진 부산지방기상청장 직무대리는 "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장 탐방 진행으로 **부산기상관측소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**가 될 것"이라며, "부산광역시, 국가유산청과 함께 **부산기상관측소를 포함한 피란수도 부산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**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"라고 전했다.

1) 우리나라 최초로 7월 19일부터 11일간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, 문화유산 전문가 3,000여 명이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, 관리, 정책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.

붙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기상관측소 현장 탐방 사진

담당 부서	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	책임자	과 장	윤미덕 (051-718-0220)
		담당자	주무관	조미영 (051-718-0221)
<공동>	예보과	담당자	사무관	고혜영 (051-718-033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| **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기상관측소 현장 탐방**